

광주 서양음악 예술상 제정되나... '장신덕 음악상' 추진

문학상 3개·미술상 2개·국악상 있는데 '서양음악' 30년 이상 공석 제정 추진위, 장신덕 추모음악회·세미나·시민 서명운동 등 예정

임방울 국악상, 김현승 문학상, 허백련 미술상. 이름만 들어도 알려진 여타 예술분야의 상훈에 비해 그동안 광주시에 부재했던 '서양음악부문' 문화예술상 추진위원회가 결성됐다. 이번 모임이 실제로 상의 제정까지 이어질지 광주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한국음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광주음악협회, 이하 광주음협)는 지난 18일 광주시 문화예술상 서양음악부문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총25인)를 발족하고, 상의 명칭을 '장신덕 음악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故 장신덕(1928~2007년)은 생전 자비로 광주시 민교향악단을 창단했으며 광주MBC합창단, KBS 합창단 등을 이끈 인물이다. 1928년 신의주에서 출생해 1950년 전남 담양에 터를 잡았고 3년 뒤 광주 사범학교에서 교사로 부임하며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1969년에는 자비를 들여 조선대 학생들을 중심으로 광주시민교향악단(민간교향악단)을 창단하고 지휘를 맡았다. 이후 1976년 광주시향 교향악단

과 광주시립합창단이 동시에 창단하자 두 단체의 초대 상임지휘자에 올랐고 1977년까지 이끌었다.

또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 지부장을 역임했으며 1950~1980년 광주전남 음악계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생전 음악이론 연구를 통해 제자 육성에 힘썼으며 1962년 조선대 문리대학 음악과에서 강사로 부임했고, 2007년 LA에서 타계했다.

지난 1992년부터 광주시는 문학, 미술, 국악 부문에서 상을 제정하고 지역예술인에게 수상하는 '광주 문화예술상'을 시상해오고 있다. 문학부문에 3개(김현성, 김용철, 정소파), 미술에 2개(허백련, 오지호), 국악에 1개(임방울) 상이 있지만 서양음악부문은 30년 이상 공석이었다.

이에 따라 장신덕 교수의 제자들은 장 교수의 음악적 위업을 기리는 음악상을 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작년 10월에는 '故 장신덕 교수 추모음악회'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었으며, 2007년 작고 당시에도 음악회를 진행한 바

고(故) 장신덕 교수



- 1928년 신의주 출생
- 1953년 광주사범학교 교사 부임
- 1969년 광주시민교향악단 창단
-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주 지부장 역임
- '전라남도 문화상' 수상
- 1962년 조선대 음악과 교수
- 2007년 LA서 타계

있다. 장신덕 교수의 제자인 김승일 조선대 명예교수는 중학교 2학년 당시 장 교수를 처음 만난 순간을 떠올리며 '끊임없는 음악 공부로 음악 세계의 문을 열어주셨던 분'이라 회상(2022년 10월 18일자 광주일보 17면)했다. 김 교수의 기억 속 장 교수는 구하기 힘들었던 음악 도서를 매일 구매해 정독할 정도로 음악적 호기심이 깊었고 발전을 추구했으며 도전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박수용(호남신학대), 변성호(광신대) 등 대학교수(8인), 광주음협 유형민 회장, 최준영 부회장, 안순순 광주예총 사무처장 등 임원진 5인,



지난 17일 '장신덕 음악상' 제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광주음협 제공>

제9~12대까지 역대회장(4인), 광주시향 및 음악중사자 및 초·중등 교원, 교장으로 구성됐다. 추진위원장은 광주음협 유형민 회장(직무대행)이 맡았다.

이에 앞서 광주음협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문화예술상 제정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공고했다. 이를 통해 장신덕, 신동민, 임흥기가 추천됐으며 지난

22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후보자로 장신덕을 선정한 것이다.

광주음협 관계자는 "향후 장신덕 교수의 추모음악회 및 세미나, 시민과 음악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꾸준한 논의를 통해 광주 문화예술상 관련 조례 개정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최유민 기자 rubi@kwangju.co.kr

'다시 만난 전일' ... 다시 문화·예술로 재충전

전일빌딩245 문화체험 '아트 오아시스' 2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 무성영화 '일주일' 상영·버스킹·북토크·미디어 전시·아트놀이터 등

플레이 워드 무비, 심어 송 라이트, 미디어 전시, 인문학 콘서트, 융복합 콘텐츠 강연 등...

지난 여름 극한 기후로 심신이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와 예술로 재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일빌딩245 시민문화체험 특화프로그램 '아트 오아시스'가 그것. 9월 매주 토요일(2, 9, 16, 23일) '다시 만난 전일'을 주제로 다채로운 장르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심어송라이트 뮤지션들의 '심어 송 라이트스'는 오는 9일(오후 4시) 전일마루에서 펼쳐진다. 90년대부터 한국 포크 장르를 대표해온 심어송라이트 장필순, 인디 문화의 산실 흥대인디씬이 낳은 뮤지션 오조, R&B 사운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심어송라이트 산하, 광주 출신 심어송라이트 기드온이 무대를 장식할 예정이다.

버스킹 스타일의 소규모 공연 '버스킹 오아시스'는 둘째주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진행된다. 2일에는 광주전남 대표 프로마사이 MS매직의 마술쇼와 실력과 앙상블 플래시의 클래식 공연이 펼쳐진다.

2일 진행되는 '플레이 워드 무비'에서는 무성영화의 결작 단편인 버스터 키튼의 '일주일'이 상영되며 전일245에서는 문창환 작가 초대전 '모텔하우스'가 13일까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내 생애 첫 전시'에서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그림 모임 '일상의 빛' 회원들의 작품을 2일부터 11일까지 3층 시민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미디어아트 장의도시 광주와 연관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미디어의 밤'에서는 정덕용 작가의 설치 미디어 전시와 김명우 작가의 싱글채널 미디어 전시가 3층 시민갤러리에서 펼쳐진다.

북토크와 강연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9일 진행되는 '인문학 토크-책 읽어주는 여자·남자'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SF 작가 김초엽을 초대해 에세이 '책과 우연들'을 함께 읽으며 융합 강연 프로그램 '전일245 클래스'에서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 126과 함께 가상현실(VR) e스포츠 파티를 진행한다.

상반기 최고 인기 체험 프로그램인 '액션! 아트놀이터'에서는 가족 책갈피 만들기, 아이싱 쿠키 만들기 등 특색 있는 일일 무료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가족아트놀이터 '하하호호'에서는 현대미술 작가 서도호 작가 작품을 보며 랩트를 만들 예정이다.

이밖에 명랑 가족 아트놀이터 '하하호호'와 '오늘은 아빠가 제왕왕', '인문학 토크-책 읽어주는 여자·남자', 융복합 콘텐츠 강연 '전일245 클래스'는 사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착순 신청을 받는다.

아트 오아시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된다. 문의 062 - 233-0245.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문학 콘서트 '책 읽어주는 여자 & 남자'(왼쪽)와 지난 행사 때 진행된 미디어 전시 '미디어의 밤'.



전남도립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공모 시작

18~27일... 선정작 11월 발표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은 '2023 하반기 소장작품 구입 공모'를 오는 시작한다.

이번 소장작품 구입 공모는 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고 미술사적·예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도립미술관은 매년 2회(상·하반기) 공모 절차를 통해 우수한 작품을 수집해 오고 있으며, 수집된 작품은 전시, 교육 등 도민 문화 향유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공모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 작품, 전남미술사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작품, 전남의 역사·지리·자연·문화적 특징을 소재로 한 작품 등을 수집한다.

접수된 작품(우편 접수만 가능)은 작품수집 추진위원회 및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 작품은 1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9월호

디자인...수묵... '비엔날레' 만나다



비엔날레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광주에서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전남에서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가 문화 애호가들의 발길을 기다린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 9월호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디자인을 만나다'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주목도 끼에서 스마트 폰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디자인이라는 펜으로 일상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9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를 미리 살펴보고 디자인비엔날레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광주·전남 가을축제와 문화행사들을 안내한다.

'전남관광광역지도'는 수묵비엔날레 소식과 함께 '남중화의 산실' 진도 운림산방으로 향한다. '물드는 산, 멈춰선 물 - 송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에서 펼쳐지는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를 소개하고, 비엔날레 주 전시관으로 활용되는 운림산방으로 초가를 나들이를 떠난다.

'예향 초대석'의 주인공은 '제4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인 조병수 건축가다. '땅의 도시, 땅의 건축'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복지광장 등지에서 개최(9월 1일~10월 29일)되는 '제4회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를 비

롯해 '막의 미(美)', '비움'에 대해 들었다.

'우리 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희원미술관이다. 광주 양림동을 찾는 방문객들이라면 양림골목길 아담한 한옥들과 이웃한 한희원미술관을 빼지 않고 들른다. 2015년 문을 연 미술관은 지난 8년 동안 광주 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20여만 명이 다녀가는 명소로 떠올랐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럽' 여정은 '빙그레 웃는 섬' 완도로 떠난다.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를 자부하는 완도군은 청정 해양자원을 바탕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해양웰니스관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지도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이어 '국립 난도완도수목원'과 '국립 해양수산박물관'도 들어선다. 청정바다의 보물 전보과 각종 해초류도 만날 수 있는 완도로 가을 여행을 나선다.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는 '2023 목포문학박람회'(9월 14~17일)가 열리는 목포문학관을 둘러보고 차범석, 김우진, 김현관 등 목포가 낳은 작가들의 문학세계로 안내한다.

이외에 '호남의 누정'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광주 풍영정에서 만나는 옛 선비의 시문(詩文), '문화 화제' 국경의 예술혼 이어가는 제31회 임방울국악제, '예향이 만난 이사람' 국방의 의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KIA타이거즈 복귀를 앞두고 있는 박민·김현수와의 인터뷰도 읽을거리다. /이보람 기자 boram@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삿시)교체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